

Malcolm C. Fenwick의 울릉도 선교에 관한 평가

안 희 열

〈선교학 부교수〉

missionsahn@kbtus.ac.kr

들어가는 말

2020년은 한국침례교 울릉도 선교 124주년이 되는 해이다.¹⁾ 울릉도 침례교 선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은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의 영향이 크다. 펜윅은 초기 한국선교사와는 달리 남들이 가지 꺼리는 농어촌이나 산골짜기와 같은 오지선교에 집중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이다. 펜윅은 울릉도 선교에 열매가 나타나자 1915년 조사리 대화회(총회)에서 울릉도[울도]를 동아기독교의 전도구역으로 설정하여 울릉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동아기독교가 성장·발전하는데 기초를 닦았다.²⁾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방이후 남한의 동아기독교는 북한, 재만,

1) 최인회 감로가 석포동에 입도한 때가 1896년이기에 124주년이 된다. 울북향 역사편찬 위원회 편,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대전: 남강문화사, 1999), 119;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서울: 누기출판사, 2007), 1005.

재려 동아기독교와는 달리 40개 교회 밖에 남아있지 않아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1950년 미국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와 제휴하여 재기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 펜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이 울릉도 침례교회이다.³⁾ 해방 당시 울릉도의 인구는 13,949명을 지닌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남한의 40개 침례교회 중 울릉도에 침례교회가 5개나 되어서 한국침례교회가 재기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⁴⁾

본고는 펜윅의 울릉도 선교와 교회개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장로교 통합측과 울릉도 선교시기와 교회창립에 관한 논쟁을 함께 살펴보고, 울릉도 침례교회의 시기별 선교특징과 울릉도 침례교회의 100주년 기념교회의 특징을 살펴본 뒤 펜윅의 울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 선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1889년부터 1945년까지 다루지만 해방 이후 울릉도 침례교회도 약간 다룰 것이다. 사실 1차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출판된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역사연감」,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의 초판과 증보판, 「한국침례교회사」⁵⁾ 외에 울릉군청에서 발행한 「울릉군지」와 장로교 통합측에서 발행한 「울릉군 기독교 100년사(1909-2009)」와 ‘김석규 목사의 묘(墓)’에 기록된 묘비 내용을 최근에 발견함으로써 본고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한편 각 자료마다 교회시작 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겪었는데 이번 기

2)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서울: 성청사, 1964), 29.

3) Ibid., 60;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150-1. 1940년대 동아기독교의 교세를 보면 북방선교(북한, 만주, 시베리아, 내몽고) 지역에 210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남한의 동아기독교는 40개 교회에 불과해서 해방 이후 1950년에 미국남침례교와 제휴하였다.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64집 (2019 가을): 92.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서울: 경인문화사, 2007), 82.

5) 「한국침례교회사」는 1990년에 이정수가 집필한 것과 1999년에 허진이 저술한 두 권의 책이 있다.

회에 근거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신약교회의 태동처럼 최소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했음을 밝힌다.⁶⁾ 펜윅이 1889년 내한한 이후 교단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본고에서는 동아기독교로 통일했음도 미리 밝힌다.⁷⁾

I. 펜윅의 울릉도 선교

펜윅 선교사가 울릉도 선교를 시작할 때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다. 그가 넘어야 할 악재는 1892년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선교지 분할 협정(comity) 초안이 작성되어 동아기독교와 같은 근소교단의 지역적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고,⁸⁾ 기회는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발표된 이후 울릉도의 인구가 급증함으로 선교의 호재가 되었다.⁹⁾ 그렇다면 펜윅이 울릉도 선교의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
- 6) 신약교회의 태동을 보면 예루살렘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행 12:12)에서, 골로새교회는 빌레몬의 집(골 1:7; 문 1:1-2)에서 예배함으로 태동되었다. Roger W. Gehring, *House Church and Mission*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72.
 - 7) 한국침례교회의 교단 명칭은 1950년까지 대한기독교교회(1906년), 동아기독교교회(1921년), 동아기독교대(1933년), 동아기독교(1940년), 대한기독교침례회(1949년)로 여러 번 바뀌었다. 안희열, 「말콤 펜윅: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개정증보판·특별판 (대전: 하기사원, 2019), 126, 132.
 - 8) 선교지 분할 협정(comity)이란 각 교단과 선교단체 간의 선교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역분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추진한 선교지역분할도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2002), 215-7을 보라.
 - 9) 1882년부터 1945년까지 울릉도 인구 증가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한국인구학」 27집 1호 (2004 6월): 1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81-2를 참조하라.

1. 울릉도 최초의 선교 시작

첫째로 한국침례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의 논쟁은 울릉도 선교 시작에 관한 것이다. 울릉도 최초의 선교는 펜익의 제자인 최인회 감로가 1896년 석포동(지개골)에 입도함으로써 울릉도 선교가 시작되었다.¹⁰⁾ 최인회가 입도하게 된 것은 고종이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공포하면서 많은 이들이 울릉도에 이주했는데 이 때 최인회도 함께 입도했다.¹¹⁾ 당시 울릉도 이주자들은 세 가지 동기가 있었는데 사회·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종교적 이유였다.¹²⁾ 그렇다면 최인회는 어떤 동기로 입도 했을까?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종교적 갈망이 컸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불구의 몸이었던 자신의 몸이 치유 받게 되자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 입도했다.¹³⁾ 둘째로 가난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이다.¹⁴⁾ 육지에서의 기근을 피해서 입도했는데, 그는 석포에서 화전농사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발표된 이후 초기 이주자들은 대개 사회·정치적 이유로 입도했다.¹⁵⁾ 19세기 말 발생한 임오군란(1882), 동학난(1894), 청일전쟁(1894)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피해 입도한 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다수는 식자층의 선비들로 울릉도에 잠시 머문 후 다시 육지로 돌아갈 마음이 컸지만 생각이 바뀌어 정착한 이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초기 이주자들은 농업 이주의 하류층과 함께 식자층이 골고루 퍼져 있었다. 그렇

10)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145.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186-90.

12)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163-6.

13)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울릉군: 기독교한국침례회 울릉지방회, 2017), 4.

14) Ibid., 143.

15)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163.

다면 왜 최인회가 ‘울릉도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최인회의 입도 동기는 종교적 동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비록 화전농사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그의 목표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었다. 입도 후 최인회는 그의 제자인 이종우 감로를 탄생시켰고, 석포교회와 평리교회를 개척하였다.¹⁶⁾

한편 장로교 통합측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자료에 따라 1909년 김병두가 울릉도에 입도해서 교회를 설립함으로 최초의 울릉도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⁷⁾ 그래서 장로교 통합측은 2009년 4월 27일(화) 울릉동광교회에서 ‘울릉군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통합측 총회장이었던 김삼환 목사는 “신비의 섬 울릉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는 해[2009년]를 맞이하여 이렇게 울릉군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라고 격려사를 했다.¹⁸⁾ 당시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김병두가 1909년 울릉도에 입도했지만, 이보다 무려 13년이나 빠른 1896년에 최인회가 입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았을 때 통합측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2. 울릉도 최초의 교회 시작

둘째로 침례교회와 장로교 통합측과의 논쟁은 어떤 교회가 울릉도 최초의 교회이냐의 문제이다. 울릉도 최초의 교회에 관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1896년 설, 1905년 설, 1909년 설이다. 첫째로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가 주장하는 1896년 설이다. 기침이 2007년에 발행한 「역사연감」은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1999)의 “1896년 최인회씨가 고향인 영천에

16)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5, 124, 143.

17) 포항남노회 울릉시찰회, 「울릉군 기독교 100년사 (1909-2009)」(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2012), 56-7.

18) Ibid., 484.

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난으로 인하여 울릉도에 입도하여 당시 석포(지개골)에서 화전을 이루어 농사를 지어 생활을 유지하며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에 근거해 1896년 설을 주장한다.¹⁹⁾ 석포교회의 창립일자를 1896년으로 본 것이다. 앞서 논의 한 것처럼 최인회는 1896년에 입도한 후 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1909년에 첫 제자인 이종우를 개종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릉도 ‘입도일’과 ‘교회개척일’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펜윅 선교사의 경우를 보면 그의 ‘내한일(來韓日)’은 1889년 12월 11일 이어서 2019년에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를 총회 차원에서 가졌다.²⁰⁾ 하지만 펜윅의 ‘원산교회 창립일’은 ‘내한일’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원산교회 창립일자는 1909년으로 알려졌는데,²¹⁾ 오히려 그가 원산에 도착한 1891년 가을부터 1893년 본국인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 원산농장에서 예배를 실시했을 것이라는 ‘1893년 이전설’을 연구자가 주장한바 있다.²²⁾ 교회창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사람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교회 시작이 될 수 있다. 최인회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그가 이종우를 개종시킨 1909년 이전 어느 시점에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거 자료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된다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자료 발견에 따른 1905년 설이다. 최근 연구자는 ‘김석

19)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1005; 울목향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9.

20) 안희열, 『말콤 펜윅』, 61.

21)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127;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35.

22) 원산교회 교회창립에 관한 논쟁을 보기 위해서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98-100을 참조하라.

규 목사의 묘(墓)'의 묘비 내용을 입수했다. 여기에는 김석규 목사의 부친인 김두건씨가 울릉도에 입도한 이후 “1905년 5월 1일 경북 울릉군 남면 저동 417번지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처음 침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³⁾ 묘비에는 저동교회 교회창립일이 1905년 5월 1일로 밝혀졌고, 창립 멤버인 김두건과 그의 아내 백임옥, 장남 김창규, 셋째 아들 김석규를 밝히고 있는데 펜워의 제자인 김종희가 빠져있다.²⁴⁾ 더욱이 “417번지는 지번이 아니고 집의 번지”라고 함께 기술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지금까지 출판된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초판), 「역사연감」, 「한국침례교회사」(허긴),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증보판)에 기록된 저동교회 창립연도일의 수정이 필요하다.²⁶⁾ 연구자는 1905년 설에 한 표를 던진다.

한편 김용해의 「대한기독교침례회사」와 이정수의 「한국침례교회사」는 똑같이 김석규가 1909년에 정동교회를 개척했고, 김두건이 1911년에 저동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⁷⁾ 여기서 정동교회는 저동교회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특히 연구자는 김석규가 1909년에 저동교회 설립자라는 기록에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김석규 목사의 묘’에 실린 내용을 발견함으로 의문이 풀렸다. 1909년 당시 김석규는 김두건의 4형제(창규, 정규, 석규, 필규) 중 셋째로 만 18세 청년에 불과했다.²⁸⁾ 무엇보다

23) “목사 김석규의 묘,” 2013년 4월 10일.

24) Ibid. 각주 71번의 내용을 참조하라.

25) “목사 김석규의 묘,” 2013년 4월 10일.

26) 저동교회 교회창립일에 관해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초판), 「역사연감」, 「한국침례교회사」(허긴)은 1910년 5월 10일로,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증보판)은 1906년 5월 1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수정해야 한다. 울목향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81;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1001;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44-5;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87.

27)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127-8;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36.

28) 김석규는 1891년 3월 11일 경상북도 영천출신으로 1909년은 만 18세가 된다. 김강

김석규는 아버지 김두건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교회개척을 할 리가 없고, 1909년 당시 그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김용해와 이정수의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1905년 5월 1일 김두건씨의 가정 저동 417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저동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저동교회 설립자는 김두건씨이고, 창립멤버로는 김두건, 백임옥, 김창규, 김석규와 함께 펜워의 제자인 김종희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저동교회를 시작하였다.

셋째로 장로교 통합측이 주장하는 1909년 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남노회 올릉시찰회(통합측)가 발행한 「올릉군 기독교 100년사(1909-2009)」를 보면 강원도에서 입도한 권서순회전도사인 김병두가 1909년에 나리교회를 세움으로 올릉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한다.²⁹⁾ 더욱이 「올릉군지(鬱陵郡誌)」는 올릉도 개신교 역사를 장로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올릉군청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집필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에 따르면 올릉도의 복음 전파 과정을 장로교 중심으로 기술했지 침례교[동아기독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³⁰⁾ 무엇보다 펜워보다 일찍 내한한 장·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놓은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올릉도에 파송 받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기록을 하나같이 ‘올릉도 개신교 역사’로 묘사하는 것은 ‘자문화중심주의’ 역사접근법이라 여긴다.³¹⁾ 따라서 「올릉군 기독교 100년사(1909-2009)」와 「올릉군지」는 수정되어야 한다. 올릉도 최초의 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저동교회(침

수, 「한국침례교 인물사」(서울: 요단출판사, 2007), 197.

29) 포항남노회 올릉시찰회, 「올릉군 기독교 100년사(1909-2009)」, 56-7, 115, 485.

30)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올릉군지」, 701-4를 보라.

31) ‘자문화중심주의’란 자신의 교육, 감정,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문화가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는 논리로 자문화우월주의로 불린다. Paul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서울: 조이선교회, 2003), 136.

례교)이지 1909년에 세워진 나리교회(장로교)가 아니다.

3.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른 펜윅의 울릉도 선교

펜윅이 울릉도 선교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선교지 분할 정책 (comity)이었다. 사실 선교지 분할 정책은 각 교단과의 선교사역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은 선교지 분할 정책의 협정문 초안을 1892년 6월 11일에 발표하여 실행한 뒤, 1909년 9월 16일-17일에 양 교단에 의해 공식 조인되었다.³²⁾ 그런데 울릉도의 행정구역이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로 바뀌다보니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른 장.감의 울릉도 책임 선교회도 바뀌었다.³³⁾ 예를 들어 선교지 분할 정책 초안이 만들어진 때에는 울릉도가 강원도 행정구역인지라 울릉도 책임을 맡았던 미감리회가 1909년에 김병두를 파송하였고, 1909년에는 울릉도가 경상남도에 속해서 호주장로교가 울릉도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³⁴⁾ 이후부터는 호주선교사인 제임스 매켄지(James Nobel Mackenzie)가 1910년부터 1917년까지 순회선교사로 활동하였다.³⁵⁾

펜윅은 선교지 분할 정책을 반대하였다.³⁶⁾ 더욱이 펜윅은 장.감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지 분할 정책에 협조하라는 위협까지도 받았다.³⁷⁾ 그렇

3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601, 603.

33) 울릉도는 1906년 9월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관할로 바뀌었다가 1914년 3월부터 경상북도로 이속되었다. 유미림, “일제 강점기 언론에 보도된 울릉도 사회,” 『해양정책연구』 34집 1호 (2019 6월): 57-8.

3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 60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216-7.

35) 포항남노회 울릉시찰회, 「울릉군 기독교 100년사」, 57.

36) Malcolm C. Fenwick, *Life in the Cup* (Mesa Grande, CA: Church of Christ in Korea Extension, 1917), 215.

다면 펜워이 어떻게 선교지 분할 협정이란 암초를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1892년에 만들어진 초안을 보면 5천 명 이상의 대도시는 장.감의 공동 점유를 인정했지만, 울릉도와 같은 미개척 지역에는 새로운 선교회의 교회 개척을 열어두었기에 펜워은 오지선교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³⁸⁾ 펜워은 울릉도 선교 확장을 위해 1910년에 최인회를 울릉도의 전도인으로 임명하였고, 1915년 대화회에서는 울릉도를 전도구역으로 설정하였다.³⁹⁾ 뿐만 아니라 손필환을 필두로 해서 박노기, 노재천, 한봉관, 전병무, 백남조, 신성균 등 당시 동아기독교의 탁월한 인재들을 울릉도 순회목회자로 파송해서 울릉도 선교에 꽃을 피워 현재 18개의 교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만들었다.⁴⁰⁾ 이처럼 펜워의 울릉도 선교는 장.감이 만든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이뤄낸 성과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1882년 울릉도 개척령 발표에 따른 펜워의 대응

펜워의 울릉도 선교의 호재라면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이 공포된 후 울릉도 인구의 증가이다. 고종이 1882년(고종 19년) 8월 20일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한 이후 그 다음해인 1883년에 16가구 54명이 공식적으로 울릉도에 첫 이주를 하였다.⁴¹⁾ 물론 개척령이 시행되기 전인 1882년에 울릉도에는 294명의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 개척령이 시행된 이후 울릉도

37)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29.

38) 장.감에 의해 1892년 6월 11일 만들어진 선교지 분할 협정 초안(7개 항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213-4를 보라.

39)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26, 29;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67, 75-7.

40) 울릉도 순회목회자로 파송 받은 명단을 보기 위해서는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8-21을 참조하라.

4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186-9;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152; 박성용, 「독도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조직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8), 90.

의 인구증가를 보면 1900년에 거주민 수가 1,844명이었다가 1906년에는 6,464명으로, 1920년에는 8,945명으로, 1944년에는 16,130명으로 증가하였다.⁴²⁾ 펜윅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교회개혁에 힘썼다. <그림 1> “초기 한국침례교 지역별 분포도 현황(1889-1945)”을 보면 1945년까지 울릉도에서 생존한 침례교회가 5개 있는데 이는 남한 전체 침례교회의 13%를 차지하였다.⁴³⁾

그렇다면 펜윅이 울릉도 선교를 시작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사실 고종이 단행한 울릉도 개척령은 어업이주가 아닌 농업이주 정책이었다.⁴⁴⁾ 울릉도에 첫발을 디딘 54명의 이주자들은 태하, 남양, 현포 등지로 흩어져 정착했는데 이 중에는 식자층도 있어서 대다수가 하류층이라는 것과는 다르다.⁴⁵⁾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인들은 높은 산이나 골짜기의 상류에 기거하면서 화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울릉도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급증(1911-1919)하면서 이들은 농사가 아닌 어업활동이 편한 해안가에 집을 짓다보니 한국인들은 산골짜기로 내몰리고 말았다.⁴⁶⁾ 그래서 울릉도민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예를 들어 1910년대 울릉도민의 하루 식비는 고작 4전에 불과했고, 1920년에는 만엔 이상의 돈을 지닌 일본인이 9가구나 되었으나 한국인은 없었고, 1930

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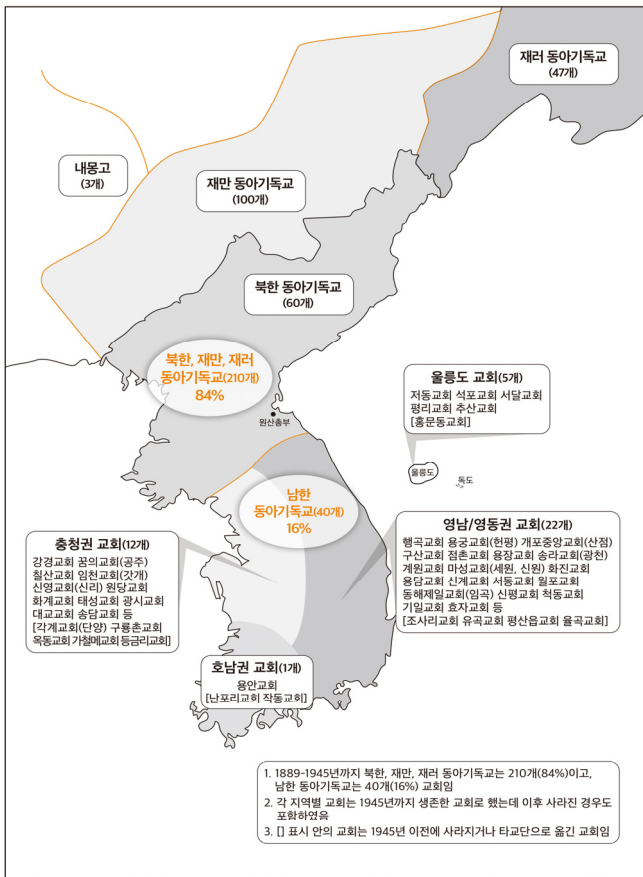
43) 5개의 침례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저동교회, (2) 석포교회, (3) 서달교회, (4) 평리교회, (5) 추산교회.

44) 고종이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공포한 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인들이 어업이주가 아닌 농업이주를 하자 어업이주로 울릉도와 독도의 해역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無住地)라 공포한 뒤 일본의 영토라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7), 220-1.

45)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166-7. 1883년 울릉도 1차 이주자 명단과 이력을 보기 위해서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188-9를 참조하라.

46) 양보경 외 2인, “일제 강점기 울릉도 주민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구,” 2010년 8월, 한국지역지리학회, 162.

년대에는 농업에 종사한 약 90%의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고용되었는데 1934년 대기근으로 일본인에게 빌린 고리대금은 생활을 더욱 찌들게 만들었다.⁴⁷⁾ 이처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불안에 떨던 울릉도민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데 앞장 선 자가 팬익이었다.



<그림 1> 초기 한국침례교 지역별 분포도 현황(1889-1945)

47) 유미림, “일제 강점기 언론에 보도된 울릉도 사회,” 54-7.

II. 울릉도 침례교회의 시기별 선교특징

울릉도 침례교회는 크게 두 줄기로 형성되어 있다. 전반부(1896-1945)는 펜윅이 세운 동야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1946-현재)는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회중정치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⁴⁸⁾ 전반부는 초창기(1896-1914)와 고난기(1915-1945)로 나뉘고, 후반부는 교회개혁기(1946-1969)와 성장과 안정기(1970-현재)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각 시기별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사라졌는지, 시기별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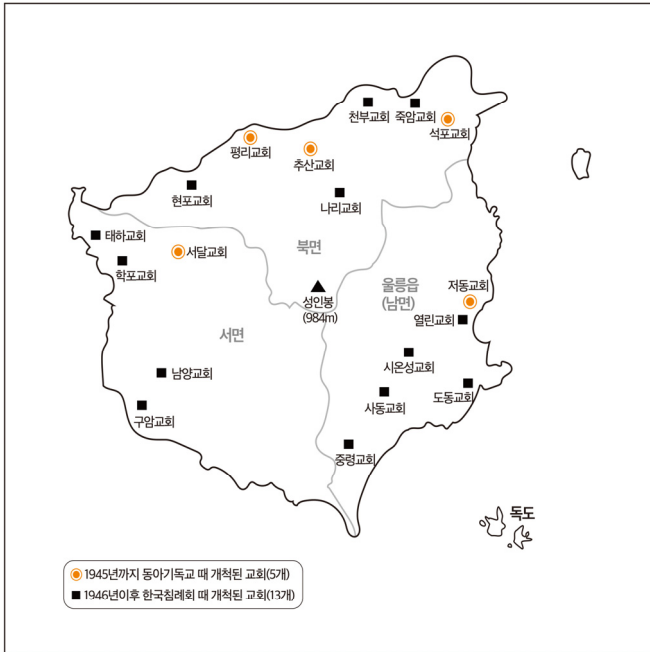
1. 초창기(1896-1914)

초창기는 최인회씨가 울릉도에 입도한 후 동야기독교가 울릉도에 뿌리를 내리던 때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가 몰아닥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동교회, 석포교회, 서달교회, 평리교회, 홍문동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림 2> “한국침례교 울릉도 교회 분포도(1905-2020)”를 보면 저동교회와 평리교회는 해안가에 세워졌고, 석포교회, 서달교회, 홍문동교회는 내륙 산골짜기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홍문동교회는 1917년 3월 이종우에 의해 교회개혁이 이뤄진 뒤 1942년 6월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가 해방이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사라졌다.⁴⁹⁾ 흥미로운

48) 1946년 강경 대화회에서 종전의 ‘감목정치’에서 침례교회의 이상인 ‘회중정치’로 전환할 것을 가결시켰다.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74-5;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51-2.

49)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6, 114. 홍문동교회는 현재 나리교회와 천부교회 사이에 있었는데 홍문동교회가 사라진 이유에 관해 허진은 이종우 감로가 소천한 후 그의 가족이 평리로 이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145.

것은 초창기 울릉도 동아기독교는 김두건 그룹과 최인회 그룹에 의해 교회개혁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다.⁵⁰⁾ 김두건 그룹의 교회는 저동교회이고, 최인회 그룹은 석포교회, 평리교회, 흥문동교회이다. 초창기 울릉도 동아기독교는 가정교회로 개척했지만 서달교회는 1928년에, 평리교회는 1933년에 목조건물의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다.⁵¹⁾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에 석포교회, 서달교회, 평리교회가 세워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림 2> 한국침례교 울릉도 교회 분포도(1905-2020)

50) 김두건 그룹이란 김두건과 함께 아들 김창규, 김석규에 의해 교회개혁이 이뤄진 것을 말하고, 최인회 그룹이란 최인회 감모와 그가 전도한 이종우 감모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한다.

51)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4, 124.

2. 고난기(1915-1945)

고난기는 울릉도 동아기독교회가 일본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던 시기를 말한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41년에 진주만 급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는 1940년 9월에 곡물징수령이 반포되어 집집마다 곡물이 공출되었고, 1941년에는 소개령(疎開令)이 반포되어 울릉도의 남자 15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는 무조건 군병과 보국대로 총용되었다.⁵²⁾ 이때 평리교회 출신인 김해용 감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약 8개월 간 원산형무소에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⁵³⁾ 뿐만 아니라 울릉도 동아기독교인 중에 김시용, 김한식, 배해수, 김창규, 박원준, 남규연, 임부춘 등도 신사참배를 거부해 2주 이상 유치장 신세를 졌다.⁵⁴⁾

더욱이 일본은 1942년 6월에 서달교회, 평리교회, 흥문동교회의 예배당을 강제 철거함으로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다.⁵⁵⁾ 이때 추산교회가 1942년에 개척되었다. 김만수 목사(추산교회)는 1942년에 사용되었던 추산교회의 ‘재정장부’를 새롭게 발견함에 따라 1942년을 교회창립일로 주장한다.⁵⁶⁾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증보판)는 1942년 2월 23일을 교회개척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56년을 교회창립일로 기록한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초판)와 「역사연감」은 수정되어야 한다.⁵⁷⁾

52) 김호동, 「독도 울릉도의 역사」, 207.

5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218;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64-8;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42-5.

54)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9.

5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702.

56) 김만수,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2020년 3월 10일.

57) 울목향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2;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

3. 교회개혁기(1946-1969)

교회개혁기란 해방이후 울릉도 침례교회의 재건운동과 교회개혁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를 말한다. 해방 전 강제 폐쇄되었던 교회 가운데 흥분동교회를 제외한 저동교회, 평리교회, 서달교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재건되었다. 이들 세 교회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가정교회' 재건이었다.⁵⁸⁾ 석포교회는 1953년에 이르러서야 가정교회로 재건되었다.⁵⁹⁾ 놀라운 일은 이 시기에 13개의 교회가 개혁된 것이다: (1) 도동교회, (2) 천부교회, (3) 태하교회, (4) 학포교회, (5) 죽암교회, (6) 남양교회, (7) 구암교회, (8) 현포교회, (9) 사동교회, (10) 중령교회, (11) 나리교회, (12) 통구미교회, (13) 열린교회(전 대저교회).⁶⁰⁾ 이 가운데 처음부터 '건물'을 지닌 조직교회로 개혁된 곳은 남양교회와 열린교회이고, 태하교회는 공회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교회는 가정교회로 개혁되었다. 특히 개혁 이후 미국남침례교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 교회건축이 이뤄진 교회는 태하교회, 서달교회, 학포교회, 현포교회이다.⁶¹⁾ 이를 계기로 당시 17개의 침례교회 중에서 15개 교회가 조직교회로 건축되어 88%가 자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었다.⁶²⁾

감], 1006.

58) 저동교회는 저동 415-1번지에서, 평리교회는 김대식씨 가정에서, 서달교회는 남규연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재건되었다.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20-1.

59) Ibid., 25.

60) 13개 교회 중 현재 통구미교회는 사라졌다.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26-7, 86-149.

61) Ibid., 110, 120, 128.

62) 죽암교회는 1971년에, 추산교회는 1976년에 교회건축을 완공하였다. Ibid., 132, 148.

4. 성장과 안정기(1970-현재)

성장과 안정기는 울릉도 침례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여 지금 안정기를 맞는 것을 말한다. 2002년에는 시온성교회가 개척되어 현재 울릉도 침례교회는 18개가 되었다. 감사한 것은 이 기간 동안 18개 교회 모두가 건축을 완공하여 100%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소유하였다. 한국교회사에서 한 지역의 교회가 100% 교회건축이 이뤄진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울릉도 침례교회가 성장과 안정기에 이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1세대 목회자들의 소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펜윅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인회 감로, 이종우 감로, 김한식 감로, 김해용 감로, 김석규 목사의 정신은 2세대에 이어 현재 3세대 목회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⁶³⁾ 두 번째는 인재양성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울릉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교회성장을 위해서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울릉도 침례교회는 1970년에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3년 과정의 성경학원을 개원하여 1983년까지 목회자 배출에 앞장서기도 했다.⁶⁴⁾

III. 울릉도 침례교회의 100주년 기념교회

펜윅의 제자들을 통해 탄생한 울릉도 침례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현재 4곳(저동교회, 석포교회, 서달교회, 평리교회)에 이른다. 현재 한국침례교회에서 100년 이상 된 30개 교회 중에서 울릉도 침례교회가 4개이다. 실제적으로 5개이지만 흥문동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된 후 재건하

63) Ibid., 4-7, 18, 87-149.

64) 울릉도 침례교회 성경학원은 1970년에 개원하여 1983년까지 지속되었고, 성경 과목으로는 창세기, 사도행전, 신약개론, 야고보서, 청지기론 등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Ibid., 39-56.

지 못해서 4개가 되었다.⁶⁵⁾ 당시 교회개척은 ‘저동교회(1905년 5월 1일)→석포교회(1910년 1월 1일)→서달교회(1910년 4월 5일)→평리교회(1910년 10월 20일)→홍문동교회(1917년 3월)’ 순으로 이뤄졌다.⁶⁶⁾ 따라서 허긴이 ‘저동교회→석포교회→홍문동교회→평리교회→서달교회’ 순으로 개척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⁶⁷⁾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울릉도 침례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1. 저동교회

울릉도 최초의 교회는 저동교회이다. 김석규 목사의 묘비에 따르면 저동교회는 1905년 5월 1일 김두건씨의 집 417번지에서 시작되었다.⁶⁸⁾ 그런데 저동교회 교회개척 이야기가 김석규 목사의 묘비의 내용과 김갑수, 허긴의 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묘비에 따르면 경북 영천 출신의 할아버지 김두건씨가 아내 백임옥, 아들 김창규, 김석규와 함께 울릉도에 입도하여 여러 해 동안 태하동에 살다가 저동 417번지로 이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⁶⁹⁾ 더욱이 김용문(김석규의 셋째 아들)과 김용도(김석규의 넷째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아버지 김두건씨는 장남 김창규에게 “울릉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나. 네가 육지로 가서 도사(道士)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다.⁷⁰⁾ 그가 도착한 곳이 울진

65) Ibid., 114.

66) Ibid., 16, 114, 124, 145; “목사 김석규의 묘,” 2013년 4월 10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1001.

67)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46.

68) “목사 김석규의 묘,” 2013년 4월 10일.

69) Ibid.

70) 김두건씨가 언급한 ‘도사(道士)’는 오늘날 전도사(傳道師)를 의미한다. 김용도, 본 연

이었고 이곳에서 펜윅의 제자이자 전도인이었던 김종희를 만나 둘이 함께 울릉도에 들어와서 김두건씨 집 저동 417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린 때가 바로 1905년 5월 1일이었다.⁷¹⁾ 저동교회는 1905년 교회개척 이후 1946년까지는 순회목회자들이, 그 이후부터는 담임목회자가 활동하며 한국침례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현재 100명이 출석하는 ‘해안선교’의 모델이 되었다.⁷²⁾

2. 석포교회

석포교회는 울릉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오지교회이다. 석포교회의 출발은 경상북도 영천 출신의 최인회씨가 1896년 울릉도에 입도한 이후 석포에서 화전 농사를 짓다가 서당 선생인 이종우씨를 만나 개종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⁷³⁾ 그래서 그는 1910년에 석포교회를 개척하였다.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초판 및 증보판)에서는 석포교회 제1대 교역자로 최인회 감로가 1910년 1월 1일부터 사역했음을 명기하였다.⁷⁴⁾ 이후 최인회씨는 1910년 강경 대화회에서 울릉도 전도인으로 임명받아 울릉도 최초의 전도인이 되었다.

더욱이 최인회씨는 1913년 공주 신리(현 신영교회) 대화회에서 감로 안수를 받음으로 울릉도 제1대 감로가 되었다.⁷⁵⁾ 한편 「울릉도 침례교 발전

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0년 2월 23일; 김용문, 연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0년 2월 28일.

71) 김석규 목사의 모비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해 보라.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 197-9;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44-5.

72)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90.

73) Ibid., 15-6, 143.

74) Ibid., 145; 울목향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21. 반면에 허긴은 석포교회가 1911년 2월에 개척되었음을 주장한다.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45.

75) Ibid.

사(증보판)는 최인희씨가 1918년에 감로 안수 받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는 국제정세가 혼란하여 사역자를 새롭게 임명하지 않고 급한 사무만 처리하는 대화회를 원산교회에서 가진 것으로 보아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는 191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⁷⁶⁾ 최인희 감로는 석포교회와 평리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울릉도 교회개척의 산증인’이 되었다. 석포교회는 일제 강점기 때 폐쇄되었다가 1953년에 다시 재건되었고, 1967년에 교회 건축이 완공되어 펜익의 ‘오지선교’의 뜻을 피워 지금에 이르고 있다.⁷⁷⁾

3. 서달교회

서달교회는 동아기독교의 ‘오지선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서달은 태하에서 출발할 때 험한 태하령 고개를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이다. 바로 이곳에 1910년 4월 5일 서달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개척멤버로는 오용천과 김찬규가 있고, 1년 뒤 교세가 확장되어 오묘한, 정치경, 정진신, 김우준, 박두화, 박원준, 박방대 등이 신앙생활을 해 오지 마을이 예수 믿는 촌락이 되었다.⁷⁸⁾ 서달교회는 처음에 가정교회로 출발했지만 1928년 3월 2일에 10평의 목조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함으로써 ‘울릉도 최초의 조직교회’가 되었다.⁷⁹⁾ 1936년에는 서달교회 출신인 김한식씨가 감로 안수를 받아 울릉도 3대 감로가 되었다.⁸⁰⁾ 1942년 6월에는 일본이 서달교회를 강제 철거함으로써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해방이후 곧 바로

76)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4, 144;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80.

77)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44.

78) Ibid.,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1001.

79)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4.

80)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57.

재건 예배를 드렸다. 해방 직전에는 김한식 감로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2주 이상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⁸¹⁾ 서달교회는 이후 제일교회로 개명했다가 다시 서달교회로 환원하였다. 이처럼 서달교회는 지난 100년 이상의 세월동안 숱한 역경을 이겨낸 생명력이 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였다.

4. 평리교회

평리교회는 1910년 10월 20일 최인회의 전도를 받은 강덕삼씨 가정에서 허정식, 장동태, 임부춘 등이 함께 모여 개척된 교회이다.⁸²⁾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지만 1933년에 14평의 목조교회로 건축되어 조직교회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평리교회의 인재라면 김해용 감로이다. 그는 이종우 감로를 통해 예수 영접을 한 뒤 1940년에 울릉도 제4대 감로로 안수를 받았다.⁸³⁾ 이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준비에 광분할 때였는데 김해용 감로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자 1942년 9월 10일 원산형무소에 수감시켰고 약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1943년 5월 15일에 기소유예로 출옥하였다.⁸⁴⁾ 하지만 옥고 중에 겪은 고문의 후유증이 심해 1947년 8월 13일 주님 품에 안기었다. 이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부터 김해용 감로가 울릉도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받아 평리교회는 2009년 3월 31일에 ‘김해용 감로 순교기념비’를 세웠다.⁸⁵⁾ 평리교회는 모진 핍박에서도 꺾이

81)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4-5.

82) Ibid., 124, 143.

83) Ibid., 6.

84)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64-8.

85)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6. 평리교회 앞마당에 서 있는 ‘김해용 감로 순교기념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 식민통치 아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한 믿음의 증인을 우리의 가슴에 소중히 기념합니다.” 주후 2009년 3월 31일 기독교

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

IV. 펜윅의 올릉도 선교의 특징

올릉도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올릉 도민 들은 가뭄,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때 문에 자주성이 강하고, 문화적으로 외부와 교류를 하지만 자신만의 문화 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강하다. 이런 올릉도에 펜윅의 근본주의 신 학은 올릉도 선교에 어떤 특징을 만들었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⁸⁶⁾

1. 교회개혁자 배출에 매진

펜윅은 세대주의 종말론자여서 하루라도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 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했다. 이것은 그가 만든 대한기독교회 조직에서 확 인이 가능하다. 오늘날 평신도 리더에 해당되는 전도인과 당원(반장, 총 장, 통장)⁸⁷⁾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투입된 용병들로 훗날 감로(장 로)가 될 수 있었고, 교사는 지금의 전도사로서 약 4-5년간의 훈련을 받 은 뒤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전도인과 당원과 교사가 무척 많은 구조였 다.⁸⁸⁾ 올릉도 동아기독교의 경우 최인회 감로, 이종우 감로, 김석규 목사

한국침례회 총회.

86) 근본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5가지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성경 무오설, (2)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3) 그리스도의 속죄, (4)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 (5)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David Beale, 「근본주의의 역사」, 김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74.

87) 동아기독교의 조직도를 보면 ‘감목→목사→감로→교사→전도인→당원(반장, 총장,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장은 10명, 총장은 50명, 통장은 100명까지 통솔하였 다.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96-7.

88)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18-21;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57-61.

는 이미 전도인과 전도사 시절에 교회개척에 탁월하였다. 최인회는 석포 교회와 평리교회를, 이종우는 흥문동교회를 개척하였다. 특히 김석규는 “울릉도 선교의 사도 바울”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5개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다.⁸⁹⁾ 그는 해방이후 전도사 시절에는 4개 교회(사동교회, 중령교회, 현포교회, 죽암교회)를,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열린교회(전 대서교회)까지 개척하였다. 더욱이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당한 석포교회를 신성균 목사와 함께 다시 재건시켰다.⁹⁰⁾ “제자는 보고 배운다.”라고 했듯이 울릉도 동아기독교 지도자들은 본토의 지도자들 못지 않게 교회개척의 전문가였다.

2. 토착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 형성

토착화 교회란 현지인 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 자치, 자전하는 것을 말한다.⁹¹⁾ 민경배 교수는 펜윅을 초기 한국교회사에서 토착화에 성공한 대가라 평가하였다.⁹²⁾ 연구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토착화 수준은 어떠했을까? 자립, 자치, 자전이 잘된 것을 순서별로 나열한다면 ‘자전→자립→자치’ 순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자전의 대가’는 전도인과 당원(반장, 총장, 통장)이었다. 예를 들어 1915년 서달교회의 경우 정진신 총장, 김우준 총장, 김해용 통장, 김한식 반장, 남규연 반장의 뜨거운 전도 활동은 오지였던 서달

89)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7.

90) Ibid., 144.

91) 자립이란 현지인의 경제적 자립을, 자치란 토착인이 스스로 자치하는 것을, 자전이란 현지인이 스스로 복음 전하는 능력을 말한다. T. E. Yates, *Venn and Victorian Bishops Abroad: The Missionary Policies of Henry Venn and Their Repercussions upon the Anglican Episcopate of the Colonial Period 1841-1872* (Uppsala: Swedish Institute of Missionary Research, 1978), 16.

9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95.

을 ‘복음 마을’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였다.⁹³⁾ 동아기독교의 전도인과 당원들은 「만민좋은기별」이라는 쪽복음을 들고 험한 나리봉, 태하령, 송곳산의 산 준령을 넘어 복음 전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태동된 교회가 석포교회, 서달교회, 흥문동교회이다. 이처럼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자전은 탁월했다.

그 다음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자립은 어떠했을까? 서달교회는 오지교회로 유명하지만 교인들이 명이, 미역취나물, 소 등을 팔아서 1928년에 목조건물의 예배당을 세웠다.⁹⁴⁾ 1928년 당시 울릉도의 생활수준을 보면 5천 엔 이상을 지닌 한국인은 총 1,583가구 중에서 6가구에 불과했지만 일본인은 총 145가구 중 24가구나 될 정도로 한국인의 삶은 매우 열악했다.⁹⁵⁾ 특히 서달은 오지이기에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곳이었어서 목재로 교회건축을 하였다. 서달교회는 지형적 약조건 속에서도 자력의 힘으로 교회 건축을 이룩한 ‘울릉도 최초의 토착화 교회’가 되었다. 평리교회 역시 성도들이 자력의 힘으로 1933년에 목조건물의 교회건축을 이룩해 토착화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⁹⁶⁾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해방까지 가정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자립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자치는 어떻게? 사실 동아기독교는 1인 감독(말콤 펜워) 중심의 ‘파송제’(순회전도자)를 운영한 조직이어서 요즘 같은 담임 목사 체제는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1946년 강경 대화회에서 목회자의 ‘파송제’에서 ‘청빙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자치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⁹⁷⁾ 이렇듯 울릉도 동아기독교는 자립, 자치 자전의 토착화

93)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14.

94) Ibid.

95) 유미림, “일제 강점기 언론에 보도된 울릉도 사회,” 5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81.

96)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24.

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3. ‘죽으면 죽으리라’의 순교 신앙인 배출

펜위의 세대주의 종말론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인을 양성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초기 내한선교사들은 대다수가 세대주의자들이었는데 유독 펜위는 이 신앙이 강했다. 특히 복음의 본질이 왜곡, 변질되면 본질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데 탁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사참배의 거부이다. 1942년에 교단 32명의 대표자들이 신사참배 거부로 줄줄이 구속되어 심문을 받을 때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일본도 그 통치하에 들어가는가?” “그렇다” “일본 폐하도 불신(不信)시는 멸망 받는가?” “성경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⁹⁸⁾ 이때 울릉도 동아기독교의 대표였던 김해용 감로가 원산감옥소에 구속되었고, 김한식 감로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도동 유치장에 구속되었다.⁹⁹⁾ 펜위의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은 미래지향적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박해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오늘날 울릉도 침례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V. 펜위의 울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회에 끼친 영향

펜위의 근본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 전천년주의 사상은 고스란히 울릉도 선교에 영향을 끼쳤다. 사실 초기 내한선교사들은 대다수가 세대

97)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74-5;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51-2.

98)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63.

99) Ibid., 65;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9.

주의 종말론자여서 한국교회는 약 70-80%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차지하고 있다.¹⁰⁰⁾ 그렇다면 펜워의 율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 선교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의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1. 미전도 종족 선교의 모델 제시

첫째로 펜워의 율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회에 끼친 영향은 미전도 종족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미전도 종족이란 종족 자체의 힘으로 종족을 복음화할 만한 현지인 지도자가 부족한 종족을 말한다.¹⁰¹⁾ 따라서 파송 교회는 종족을 입양하여 현지인이 자립할 때까지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미전도 종족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선한다. 초기 율릉도 선교가 이와 비슷하다. 율릉도 1세대 지도자인 최인회, 이종우, 김한식, 김해용, 김석규는 초창기 자력의 힘으로 복음 확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펜워는 손필환, 박노기, 노재천, 한봉관, 전병무, 신성균과 같은 순회전도자를 율릉도에 정기적으로 파송해 율릉도 지도자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왔다.

이들은 ‘나선(羅船)’이란 고기잡이배를 타고 다녀야 했기에 이동의 불편함을 겪었지만 이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¹⁰²⁾ 이들은 불고가사와 불고처자의 정신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해 오늘날 율릉도를 ‘복음의 섬’으로 만드는데 공헌했다. 현재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FMB)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이곳은 문맹률이 높고, 영적전쟁이 심하고, 치병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미

100)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서울: 대장간, 2010), 8. 세대주의 종말론 선교란 입박한 재림신앙 때문에 이방인에게 속히 전도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목창균, 「종말론 논쟁」(서울: 두란노, 2005), 155.

101) Ralph D. Winter & Steven 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2), 536.

102) ‘나선’이란 전라도 배를 말한다. 김태원, “율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159.

전도 종족과 같았던 울릉도를 복음화한 펜워의 선교 정신을 FMB가 잘 계승한다면 한국침례교회의 선교 미래는 밝을 것이다.

2. 교육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의 미약

둘째로 펜워의 울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회에 끼친 영향은 교육선교를 통한 복음전파가 미약하였다. 펜워는 세대주의 종말론 신앙이 너무 강해 1926년에 학교교육을 폐지하였다.¹⁰³⁾ 조효훈은 펜워의 세상 교육 금지에 관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성경 외에 세상 교육을 받는 것은 제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⁰⁴⁾ 한편 김용국은 “말콤 펜워과 대한기독교회의 항일(抗日)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펜워가 학교 교육을 폐지한 이유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지성주의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 (2)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때문이다; (3) 펜워의 극단적인 종말 신앙 때문이다; (4) 일본 학교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이다.¹⁰⁵⁾

펜워는 학교 교육을 폐지할망정 성경에 능통한 순회전도자를 배출하는 일은 놓지 않았다. 모든 동아기독교 지도자들은 순회전도자였다. 울릉도 출신의 1호 목사인 김석규 초차도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동아기독교 시절이 아닌 해방 이후 1954년이였다.¹⁰⁶⁾ 20세기 초반 한국사회가 근대운동의 영향으로 서양교육의 열기가 불타오를 때 언드우드와 아펜젤러와 같

103)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44-5.

104) 조효훈, “펜워와 문화,” 2019년 4월 22일, 말콤 펜워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42. 반면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는 펜워의 제자들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 폐지했다고 주장한다. Timothy Hyo-hoon Cho, “A History of the Korean Baptist Convention, 1889-1969” (T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78-9.

105)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김용국, “말콤 펜워과 대한기독교회의 항일(抗日) 활동에 관한 연구,” 2019년 4월 22일, 말콤 펜워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09-11을 참조하라.

106)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92.

은 장·감 선교사는 ‘교육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에 집중했다.¹⁰⁷⁾ 하지만 펜익은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고 인재 양성은 난항을 겪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한 것은 한국침례교회가 1950년 미국남침례교와 제휴한 후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가능해졌다.¹⁰⁸⁾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신의 FMB 선교사 가운데 교육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에 모델을 제시해 준 것은 패러다임 변화의 성과물이다.¹⁰⁹⁾

3. 통전적 선교의 부족

셋째로 펜익의 울릉도 선교가 한국침례교회에 끼친 영향은 통전적 선교가 약했다. 펜익의 울릉도 선교를 도표화하면 ‘선교 = 복음전파’이다. 그에게서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통전적 선교인 ‘선교 = 복음전파 > 사회적 책임’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¹¹⁰⁾ 통전적 선교란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지만 최종목표는 복음전파에 두는 것을 말한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끝난 후 해리스(M. C. Harris) 감리교 선교사는 평양대부흥운동이 사회개혁에 앞장 선 것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술주정꾼, 도박꾼,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신자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것은 모두 지나가고 말았다.”¹¹¹⁾ 초기 한국교회는 근대화

10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547-54.

108)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350, 377-81.

109) FMB 선교사 가운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신으로 교육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의 모델로는 말레이시아의 이금주, 카자흐스탄의 주민호, 인도네시아의 하호성, 정재교 등이 있다.

110) 통전적 선교에 관해 안희열, 「21세기 글로벌 선교」 (대전: 하기서원, 2018), 140-141을 보라.

111) *Journal of the 25th Delegated Gener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Church in 1908*, 861-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62-3에서 재인용.

에 발맞추어 사회변화에 앞장섰다.

반면 동아기독교가 해마다 개최한 대화회에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가 없어서 아쉽다.¹¹²⁾ 울릉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산신, 산왕, 해신, 해양대신, 동해해신을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잡신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간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¹¹³⁾ 펜윅의 관심은 오직 영혼구령에만 있다 보니 사회적 책임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펜윅과는 달리 현재 FMB의 선교사들은 통전적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비록 닫힌 지역에서 유치원, 여행사, 빵집, 식당, 영어 학교, 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태권도 교실과 같은 일에 종사하더라도 복음전파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¹¹⁴⁾ 한국침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전적 선교에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가는 말

오늘날 울릉도를 ‘복음의 섬’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약 3천개 섬 가운데 복음화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울릉도는 약 9,457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¹¹⁵⁾ 이 가운데 교회는 37개가 있고, 천주교는 2개, 불교 사찰은 9개여서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다.¹¹⁶⁾ 울릉도 인구의 약

112) 대화회의 식순을 보기 위해서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21-2을 참조하라.

113) 이기태, “울릉도 사람들, 지금껏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실천민속학」 1집 (1999 8월): 128-33.

114) FMB의 통전적 선교의 모델로는 캄보디아의 한대회, 라오스의 정진술, 북인도의 김바울 등이 있다.

115)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 2020년 3월 6일 접속.

116) “종교단체,”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 2020년 3월 6일 접속;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171.

30%가 기독교인이다. 울릉도의 복음화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을 앞서고 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산신과 해신을 섬기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섬’으로 우뚝 서있다. 그래서 울릉도를 ‘삼무오다(三無五多)’가 아닌 ‘삼무육다(三無六多)’로 불러야 한다. ‘삼무’란 도둑, 공해, 뱀이 없고, ‘오다’란 돌, 바람, 향나무, 물, 미인이 많아서 불러진 것인데 교회를 포함시키면 ‘육다’가 된다. 이런 놀라운 결실을 이룬 중심에는 펜위의 공헌이 크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37개 교회 중 침례교회가 무려 18개여서 전체 교회 중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림 2> “한국침례교 울릉도 교회 분포도”(1905-2020)를 보아 알듯이 동아기독교 시절에 세워진 5개 교회는 울릉도 각 구역(울릉읍, 서면, 북면)의 교회 확장에 불씨가 되어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다.

현재 18개의 울릉도 침례교회는 해안가나 산기슭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만든다. 건축자재를 구하기 힘든 울릉도에서 붉은 벽돌의 교회나 철근 콘크리트 교회를 짓는 것은 육지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들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이제 모두 자립하여 토착화 교회의 산증인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개혁이 무척 힘들다고 한다. 연구자는 펜위가 울릉도 선교에서 보여준 순기능에서 답을 찾고, 역기능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펜위가 울릉도 선교를 통해 보여준 소명,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복음에 희생하는 정신은 ‘1대(최인회)→2대(이종우)→3대(김해용)’로 이어지는 제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고귀한 영적 유산이다. 2026년이 되면 ‘한국침례교 울릉도 선교 130주년(1896-2026)’이 된다. 무엇보다 한국침례교회는 100년 이상의 교회 네 곳을 잘 관리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 선교탐방’을 통해 펜위의 울릉도 선교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기독교한국침례회. 「역사연감」. 서울: 누가출판사, 2007.
-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 서울: 요단출판사, 2007.
-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성청사, 1964.
-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목창균. 「종말론 논쟁」. 서울: 두란노, 2005.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박성용. 「독도·울릉도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조직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8.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서울: 대장간, 2010.
- 안희열. 「말씀 펜윅: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개정증보판·특별판. 대전: 하기서원, 2019.
- _____. 「21세기 글로벌 선교」. 대전: 하기서원, 2018.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군지」.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울릉지방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증보판). 울릉군: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릉회, 2017.
- 울목향 역사편찬위원회 편.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 대전: 남강문화사, 1999.
-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 포항남노회 울릉시찰회 편. 「울릉군 기독교 100년사(1909-2009)」.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2012.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2002.
- 허건.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128 복음과 실천(제66집, 2020년 가을)

- Beale, David. 「근본주의의 역사」. 김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Fenwick, Malcolm C. *The Church of Christ in Corea: A Pioneer Missionary's Own Story*.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11.
- Winter, Ralph D. & Steven 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Christian Movemen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2.
- _____. *Life in the Cup*. Mesa Grande, CA: Church of Christ in Corea Extension, 1917.
- Yates, T. E. *Venn and Victorian Bishops Abroad: The Missionary Policies of Henry Venn and Their Repercussion upon the Anglican Episcopate of the Colonial Period 1841-1872*. Uppsala: Swedish Institute of Missionary Research, 1979.

2. 정기간행물 및 미간행물

- 김용국. “말콤 펜윅과 대한기독교회의 항일(抗日) 활동에 관한 연구.” 2019년 4월 22일.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02-18.
- 김태원.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한국인구학」 27집 1호 (2004 6월): 147-69.
-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64집 (2019 가을): 91-124.
- _____. “Malcolm C. Fenwick의 토착화 선교에 관한 평가: Henry Venn의 삼자 원리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46집 (2019): 281-317.
- 양보경 외 2인. “일제 강점기 울릉도 주민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구.” 2010년 8월. 한국지역지리학회, 155-65.
- 유미림. “일제 강점기 언론에 보도된 울릉도 사회.” 「해양정책연구」 34집 1호 (2009 6월): 23-65.
- 이기태. “울릉도 사람들, 지금껏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실천민속학」 1집 (1999 8월): 122-38.
- 조효훈. “펜윅과 문화.” 2019년 4월 22일.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

대회, 34-44.

Cho, Timothy Hyo-hoon, "A History of the Korean Baptist Convention, 1889-1969." T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3. 기타자료

김만수. 연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0년 3월 10일.

김용도. 연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0년 2월 23일.

김용문. 연구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0년 2월 28일.

“목사 김석규의 묘.” 2013년 4월 10일.

“종교단체.”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 2020년 3월 6일 접속.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 2020년 3월 6일 접속.